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4명 중 57명 '해외 유입'

“미국·유럽 확진자 폭증세로 해외유입 사례 늘 것”

전남 7·8번 확진자 감염원 오리무중...역학조사 행정명령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5일 하루 동안 새로 확인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04명 중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7, 8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

가 불분명해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새벽 0시 기준, 확진자 104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7명으로 나타났다.

공항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사람이 30명, 이후 지역사회로 돌아와 확인된 사람

이 27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중 내국인은 49명, 외국인은 8명이다.

지금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유입 사례는 총 284건으로, 이 중 내국인이 90%를 차지한다. 내국인은 253명, 외국인은 31명으로 조사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주간(4~10주차) 매주 2~7명 수준을 유지했다. 11주차(3월 8~14일)에는 19명으로 늘었고, 12주차(15~21일)에는 95명으로 경종 뛰었다. 13주차인 이번 주에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139명이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해외유입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검역을 강화한 만큼 검역 단계에서 상당수 걸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27일부터 유증상자는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2주간 격리 조치된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92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104명 증가한 것이다. 광주에서는 19명, 전남에서는 8명이 그동안 확진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131명으로, 전날보다 5명이 늘었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7, 8번 확진자 감염경로가 3일째 오리무중으로 방역당국이 모르는 사이 이들 노부부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환자를 통해 코로나 19가 조용히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전남도가 7, 8번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었던 가족, 교회·병원·농협관계자, 노점 손님 등, 은행 관계자 등 105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인 나타났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목포·무안 만민교회 집단예배 금지와 전남 7-8번 확진자의 심층 역학조사 협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조치·강제출국”

중대본 회의...유럽·미국발 입국자 오늘부터 자가격리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내달 6일로 개학 예정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해서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K방역’을 발전시켜 여러 나라에 도움을 주고 연관된 중소벤처기업에 힘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주목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에 이 같이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연합뉴스

국민 74% “정부가 코로나19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 설문... ‘감염 원인·전파 경로’ 우선 보도 중요

국민 다수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언론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이슈 6권 2호에 실린 ‘코로나19 관련 정보 이용 및 인식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묻은 결과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 74.4%를 차지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선 93.2%, 지자체는 77.2%, 언론은 63.7% 응답자가 적절히 대응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94.4%는 본인 스스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타인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81.9%였다. 확진자나 유증상자들의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54.1%였다. 평가는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 방식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소가 지난 9-12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74.9%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98.2%는 ‘손씻기·마스크 착용·다중시설 이용 자제 등 생활 예방 수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다’ (73.2%)는 우려와 ‘나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67.6%)는 불안감이 컸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도 감염 발생 지역 방문을 피하고 싶다’

(66.8%)는 응답도 많았다.

매체별 코로나19 관련 뉴스·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 깊이, 유용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지상파TV(87.9%)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부·지자체 홈페이지(86.2%), 종편·보도전문TV(83.1%), 인터넷포털·언론사사이트(82.4%)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언론이 우선으로 다뤄야 할 이슈로는 다수가 ‘감염 원인 및 전파 경로’ (61.9%), 국내 감염자 현황 (58.5%), 의료기관 정보 (34.1%), 예방 생활수칙 (31.8%)을 들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미확진된 정보라도 신속하게 보도’ (11.0%)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정보를 보도’ (89.0%)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박원순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체...법인설립허가 취소”

“불법적 전도·위장 포교 활동 ‘특전대’ 운영 문서 확보”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세망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부로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사단법인은 청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야 한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박 시장은 해당 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판단을 허가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모략 전도와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는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월 27일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 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격려하는 내용도 있다”며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 신도를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침투한 다른 종교 신도들의 명단도 방역 차원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이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도 하루빨리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교에는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의 봄.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19일
-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 수 강 료: 22만원(3개월)
-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 H. 010-9416-1200, T. 062)230-7700-2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자격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